유엔난민기구 2012 연례보고서 한글발췌본

UNHCR Global Report
2012 연례보고서

전 세계 난민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유엔난민기구의 연례보고서 한글발췌본입니다

UNHCR
The UN Refugee Agency
유엔난민기구

UNHCR KOREA

UNHCR
The UN Refugee Agency
유엔난민기구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UN기구입니다

www.unhcr.or.kr

TEL: 02 773 7272 E-MAIL: withyou@unhcr.or.kr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을지로 1가 16) 금세기빌딩 7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UNHCR Global Report 2012 연례보고서

전 세계 난민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유엔난민기구의 연례보고서 한글발췌본입니다

표지이야기

레바논의 한 회교도 사원 마당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 가족의 모습

발행인 **더크 헤버커**
발행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발행일 **2013년 10월**
제 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외협력팀**
디자인 **인디엔피 www.indnp.com**

contents

04 유엔난민고등판무관 감사의 글
06 한눈에 보는 2012 세계 난민 동향
08 긴급 구호
12 필수 지원
20 법적 보호 및 지원
26 재정 보고
30 한국대표부 활동 보고
34 한국대표부 재정 보고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125개국 430여 개 사무소에서 6,600여 직원들이 3,500만 난민을 비롯한 보호대상자들을 보호 ·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2001년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으로 설립된 이래,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국내 난민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전 세계 난민의 상황을 알리고 한국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후원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제네바 본부는 매년 6월 세계 난민의 날 즈음 연례보고서(Global Report)를 발행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의 난민보호 및 지원 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 후원자 및 파트너들을 위해 2012 연례보고서가 한국어로 발췌 번역되었고, 한국어로 된 연례보고서 발췌본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홈페이지(www.unhcr.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NHCR
The UN Refugee Agency
유엔난민기구

사진 속 주인공은 신의 저항군(Lord's Resistance Army) 반군 폭력의 희생양이 된 난민 여성과 어린이들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이들이 새로운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일생을 바쳐온 안젤리크 나마이카(Angelique Namaika) 수녀님입니다. 안젤리크 수녀님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난센 난민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피부색, 언어, 종교와 방식은 달라도 전 세계 난민들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정성을 보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작은 보호의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큰 변화, 여러분 모두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 난센 난민상(Nansen Refugee Awards): 유엔난민기구는 초대 난민고등판무관인 프리도프 난센의 정신을 기려 전 세계 난민보호에 특별히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매년 난센 난민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십자 연맹, 국경없는 의사회, 유엔 봉사단을 포함한 많은 인도주의 기관과 개인들이 난센 난민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Reflecting on 2012

2012년을 돌아보며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오늘날 수많은 분쟁이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전례 없는"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1년 대량 실향민 발생으로 심각한 인도주의 도전이 시작된 이래 불행히도 2012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시리아, 말리, 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 사람들을 포함하여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분쟁과 박해로 자신의 조국을 떠나 피난했습니다. 이는 21세기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며 2011년의 기록적인 수치를 능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늘어난 난민과 직원들의 숫자, 그에 비례해 증가한 지원 물자와 기금의 수치 이면에는, 거처를 잃어 버린 백만 명의 사람들, 즉 백만 명 개개인의 비극, 두려움, 무너진 삶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된 어떠한 형태의 물질적 지원도 폭력과 전쟁으로 인해 삶이 뿌리째 뽑혀 겪는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2012년 백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안전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수십만 개의 문이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변국들은 자국에 가해지는 무거운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개방하였습니다. 친척과 친구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전혀 낯선 사람들이 난민 가족들을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학교, 회교사원, 교회, 심지어 버려지거나 미완공된 건물들까지 새로 유입되는 난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로 개방되었습니다. 관련국 정부를 비롯해 수많은 일반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난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은 난민 보호 활동의 근간에 자리잡고 있는 보편적 가치의 지속적인 힘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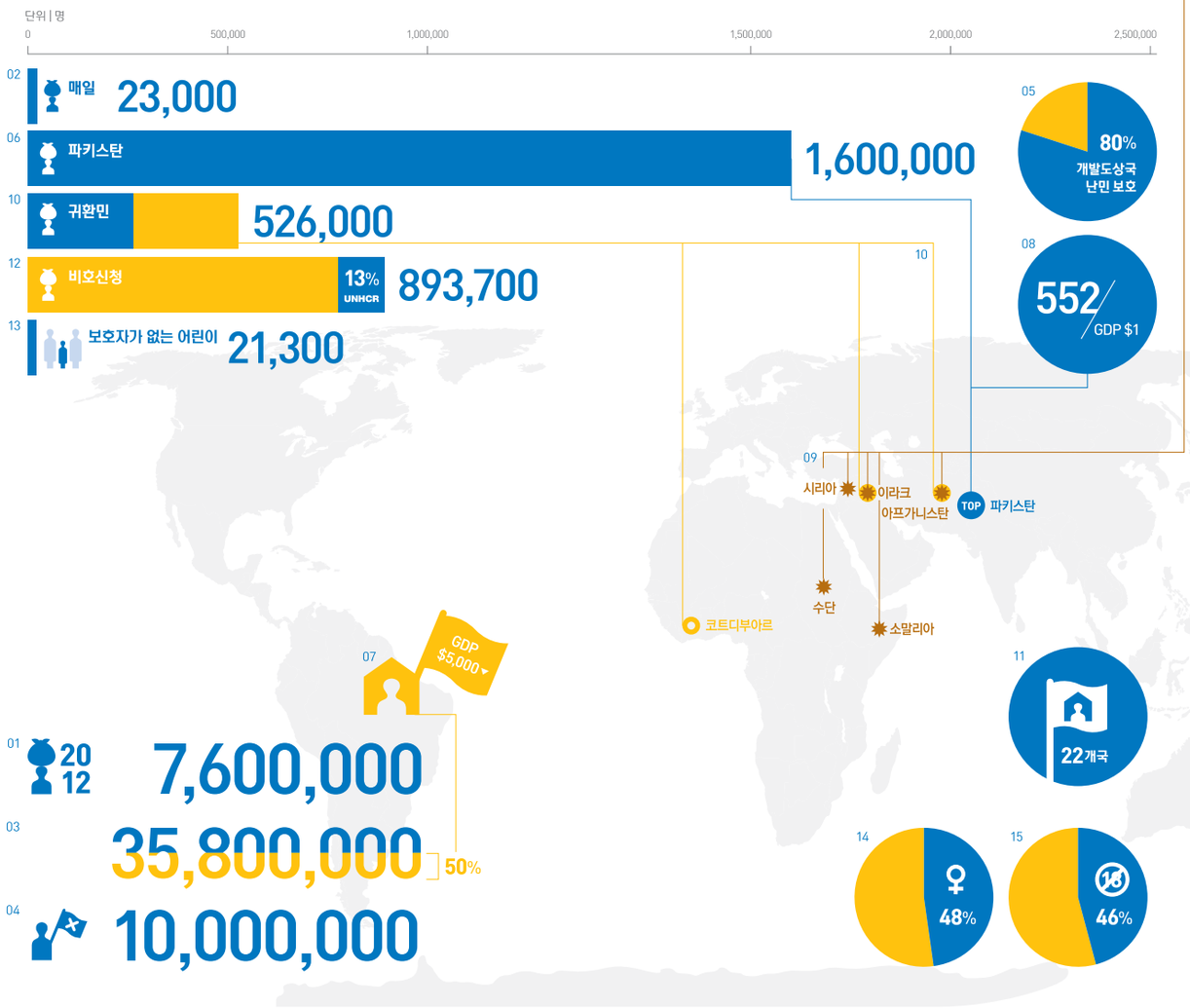
유엔난민기구와 협력 기관들은 2012년 한 해 동안 시리아, 말리, 남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동시에 발생한 난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많은 난민 상황뿐만 아니라, 2011년 코트디부아르와 리비아,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난민 사태의 여파에도 계속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난민기구의 인적 · 재정 자원에 큰 압박을 가했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 기구의 역량을 몇 년 전에 비하여 증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2012년 우리가 긴급 구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던 부분에서 결실이 확인되었습니다. 460명이 넘는 유엔난민기구와 협력 단체의 직원들이 긴급 구호 활동에 배치되었고, 배치 인력의 수는 장기화된 임무 기간과 적은 회전율 때문에 2011년에 비해서 낮았지만, 2010년의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두 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긴급 구호품을 전달하는 화물 항공편은 2012년 129회로 증가했고, 이것은 2011년에 비해 2배, 2010년에 비해 6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글로벌 재고 물류 관리를 개선하여 가능한 최단 시간에 현장으로의 운반이 가능하게 되었고, 전 세계 대응에 있어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는 2012년 조정과 파트너와의 협력, 정보 관리, 인력 관리, 기금 모금 및 자원 배분 등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인 긴급 구호 정책과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2012년은 유엔난민기구와 인도주의 기구들에게 매우 도전적인 시기였습니다. 2013년 초기의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강력한 파트너 관계에 중점을 두고, 긴급 구호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혁신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간소화에 힘쓸 것입니다. 그외에도 앞으로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적인 보호 영역에서 우리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한눈에 보는 2012 Refugee Trends 세계 난민 동향

출처: 2012 유엔난민기구 글로벌 동향보고서

2012년 전 세계적으로 4,520만 명의 사람들이 박해, 분쟁, 폭력과 인권유린으로 강제로 피난을 떠나야 했고, 이 수치에는 2,880만 국내실향민과, 1,540만 난민(1,050만 명은 유엔난민기구에, 나머지 490만 명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등록), 100만 명에 육박하는 비호신청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199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01 760만 명 — 2012년 신규 실향민

2012년 한 해 동안 난민 110만 명을 포함한 760만 명의 사람들이 분쟁과 박해를 피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는 1999년 이후 기록된 최고치입니다. 그 외에도 650만 명의 국내실향민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10년 동안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02 매일 2만 3,000명 — 강제 이주민

올해 하루 평균 2만 3,000명이 분쟁과 박해를 피해 집을 떠나 타지에서 보호받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일부는 자국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많은 수는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03 3,580만 명 — 유엔난민기구 보호대상자

2012년 하반기의 기록에 의하면 유엔난민기구가 보호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3,580만 명으로,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숫자입니다. 이 중 1,770만 명은 국내실향민이었으며 1,050만 명은 난민이었습니다. 총 보호대상자의 수는 2011년에 비해 230만 명 증가했는데, 난민의 수는 2011년의 1,040만 명과 비슷했고, 국내실향민의 수는 2011년에 비해 220만 명 증가했습니다.

04 1,000만 명 — 무국적자

2012년에는 약 1,000만 명의 사람들이 국적이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각 정부 통계에 따르면 무국적자는 72개국, 330만 명에 그쳤습니다.

05 80%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들은 현재 전체 난민의 80%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의 70%에 비해서 비중이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2012년 하반기 기록에 의하면 최빈국 49개국이 난민 240만 명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06 최다 난민 비호국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는 파키스탄(160만 명)이었으며, 이란(86만 8,200명), 독일(58만 9,700명), 그리고 케냐(56만 5,000명)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07 50% — 미화 5,000달러 미만

유엔난민기구가 보호하는 난민들의 절반 이상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미화 5,000달러 미만인 국가들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08 상위 3개국 — 국내총생산 대비 난민

국내총생산 대비 난민 보호 비율은 파키스탄이 가장 높아 2012년에는 GDP 1달러 당 552명의 난민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303명)와 케냐(301명)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09 최다 난민 발생국

전체 난민들의 절반 이상이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 수단, 5개국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10 52만 6,000명 — 귀환민

2012년 한 해에 걸쳐 52만 6,000명의 난민들이 자발적으로 귀환했습니다. 이 중 절반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리고 코트디부아르로 귀환했습니다. 이 수치는 2011년(53만 2,000명)과 비슷하며, 비록 2009년과 2010년에 비하면 증가한 편이지만, 이를 제외하고 지난 10년 동안의 수치와 비교하면 낮은 편에 속합니다.

11 22개 국가 — 재정착

작년 동안 유엔난민기구는 7만 4,800명 이상의 난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각국의 접수를 도왔고, 7만 1,000명 이상의 난민들이 유엔난민기구의 지원 아래 제3국으로 재정착했습니다. 각국 정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총 22개국이 재정착을 희망하는 난민들 8만 8,600명(유엔난민기구의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을 받아들였습니다.

12 89만 3,700명 — 비호신청 건수

2012년 한 해 동안 89만 3,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호와 난민지위를 신청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사무소들은 이 중 13%를 등록했습니다. 미국이 약 7만 400명의 비호신청건수를 기록하면서 가장 많은 개인신청을 접수했고, 독일(6만 4,500명), 남아프리카공화국(6만 1,500명) 그리고 프랑스(5만 5,100명)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3 2만 1,300명 —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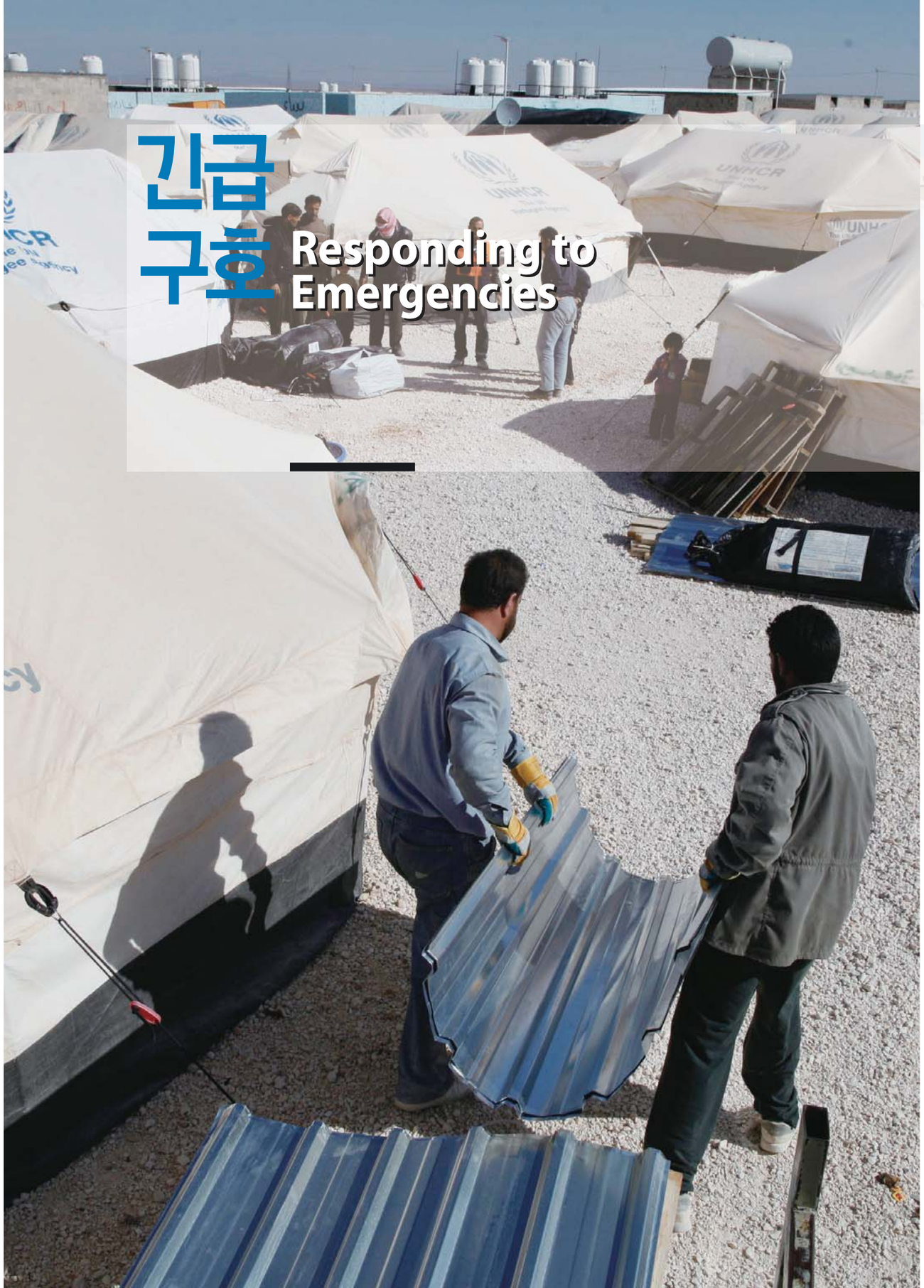
2012년의 비호신청 건수 중 약 2만 1,300건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약 72개국에서 확인되었는데,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 또는 소말리아 출신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는 이러한 정보를 수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14 48% — 여성과 여자 어린이

2012년에는 여성과 여자 어린이가 전체 난민 인구의 48%를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5 46% — 어린이

2012년에는 18세 미만 어린이들이 전체 난민 인구의 4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1년과는 비슷하나 지난 몇 년 간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는 높은 비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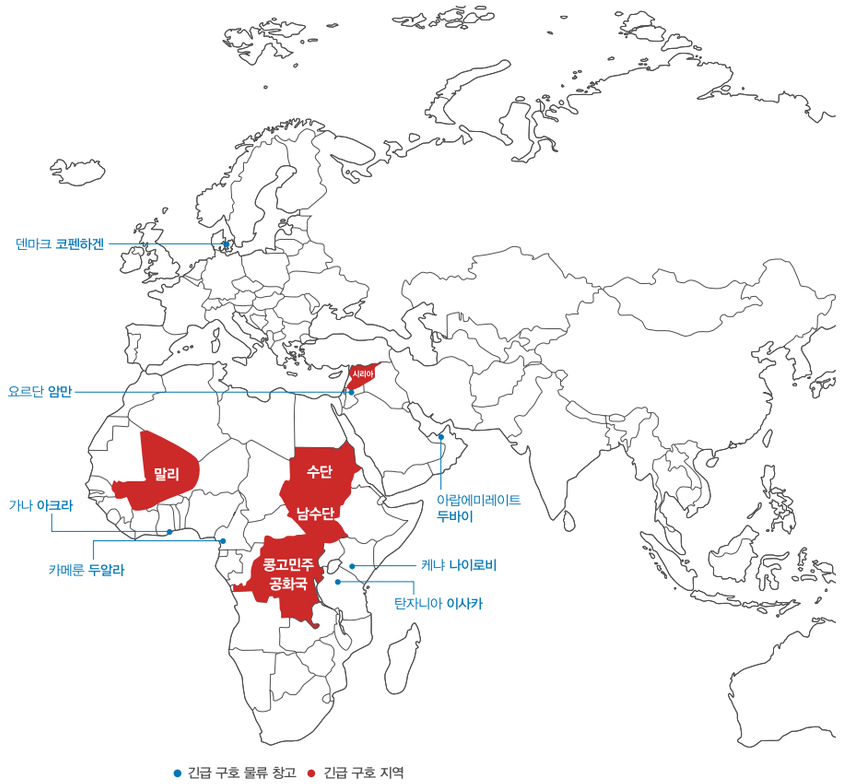


긴급 구호 Responding to Emergencies

난민위기 상황에 확실히 대비하고 효과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은 유엔난민기구의 우선 순위에 속합니다. 각 긴급 구호 활동의 구체적인 필요에 대응하여 유연한 방식으로 전체적인 자원과 전문성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구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2012년 유엔난민기구의 긴급 구호 활동이 성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점점 더 복잡해지는 구호 활동 환경과 더불어, 직원들과 보호대상자들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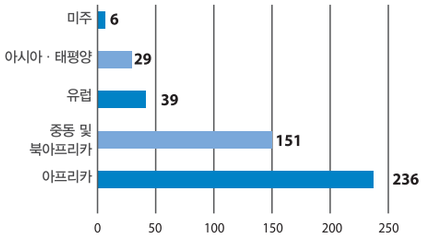
유엔난민기구는 2012년,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말리, 수단, 시리아에서 분쟁으로 초래된 사태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이 많은 수의 난민 긴급 구호 상황에 대응하였습니다. 2012년 1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이는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되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러한 국가들을 포함하여, 미얀마 등 다른 지역의 국내실향민 긴급 구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기관간 노력에도 동참하였습니다.

2012년 주요 긴급 구호 지역



긴급 구호 인력 지원

실무진과 주요 정책결정 담당 직원을 포함한 유엔난민기구의 긴급 구호 비상 역량은 급박한 통보 상황 속에도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긴급 구호 활동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엔난민기구의 긴급 구호 비상 시스템은 기술 전문가 집단을 포함한 비상 협력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긴급 구호 인력 지원 영역에서 아래의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역별 파견현황(총 460회)

- 유엔난민기구와 파트너들은 2012년 긴급 구호 활동을 위해 460회 이상 인력을 파견했고, 대부분(79%)은 난민 긴급 구호 대처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파견 인력의 절반은 아프리카로, 30%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여성 직원의 비율은 파견 직원의 약 40%였습니다.

- 2012년 파견 횟수는 2011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직원들이 긴급 구호 임무에 참여한 총 날짜 수는 동일한 선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동일한 활동에 있어 장기 임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긴급 구호 대응 초기 단계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 긴급 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보호 전문인력도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현장 보호, 지역 사회 서비스, 아동 보호, 교육, 성폭력(SGBV) 예방, 보호 클러스터 조정 분야를 지원했으며, 이 중 22%가 아동 보호와 성폭력 분야를 전담했습니다. 법률보호 인력을 통한 지원 임무는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요르단, 리비아, 말리, 니제르, 남수단, 수단, 시리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자 및 수송

유엔난민기구의 보급관리 서비스(Supply Management Service, SMS)는 2012년 수많은 긴급 사태에 직면한 가운데, 72시간 이내에 50만 명 이상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부서입니다. 신규 물류 창고 7곳의 전략적 네트워크(9페이지 참조), 공급 업체들과의 '화이트 스톡' 계약, 3면 접근 방식(항공, 해양, 도로 교통의 동시 활성화)은 아프리카 사헬 지역뿐만 아니라 시리아와 주변국들,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등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긴급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 진정한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 2012년 유엔난민기구는 2011년의 수치보다 두 배 높은 129회 구호 물자를 공수함으로써 약 20만 명의 사람들에게 핵심 구호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더 많은 물량의 구호품들이 육상 교통을 통해 수송되었습니다. 적시 긴급 수송 능력이 향상되어 90% 이상의 공수를 요청 72시간 이내에 가능케 하였습니다.

- 물류 네트워크의 확장 덕분에 유엔난민기구는 육상 및 항공 교통을 통해 필요 물품을 신속히 수송하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 요르단 **암만**(Amman)과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Dubai) 물류 창고 육로 및 항로를 통해 시리아 긴급 구호 현장으로 구호품을 적시에 운송하고 필요시 재보급 하였습니다.
  - 가나 **아크라**(Accra) 물류 창고 육상 수송을 통해 부르키나파소와 말리의 긴급 구호 현장으로 물품 공급을 지원했습니다.
  - 케냐 **나이로비**(Nairobi) 물류 창고 에티오피아, 르완다, 남수단의 긴급 구호에 필요한 파이프 라인을 제공했습니다.

필수 지원

Providing for Essential Needs

유엔난민기구가 동시에 대응해야만 했던 사태의 건수와 규모, 그리고 전례 없는 재정 및 인적 자원에 대한 수요를 고려할 때, 2012년은 가장 도전적인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난민기구는 비정부기구, 넓은 인도주의 커뮤니티, 국가와 민간 부문을 포함한 파트너십의 힘 덕분에 필수 서비스 제공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분쟁, 폭력, 박해를 피해 빈손으로 피난을 떠나야만 했던 난민들을 위해, 물품뿐만 아니라 각종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심이 기울여졌습니다. 특히, 리더십과 조정 능력을 갖춘 숙련된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주거, 교육, 물과 위생 및 공중보건, 영양 등의 부문에서 80명 이상의 전문가를 배치했습니다.

주거 및 정착

2012년 유엔난민기구는 난민과 보호대상자들에게 적시에 효율적인 임시 거처와 정착지를 제공하기 위해 기구의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약 35명의 임시 거처 전문가들이 파견되면서 콩고민주공화국, 말리, 미얀마, 남수단, 시리아에서 발생한 수백만 명의 난민과 국내실향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와 정착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는 각 지역에 조달된 물자 및 임시 거처 대안책을 포함하여 비용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새로운 임시 거처 해법을 추구했습니다. 2012년 유엔난민기구의 임시 거처 제공에 관한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웨덴 난민 주거 부서와 이케아(IKEA) 재단과의 협력 하에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50개의 임시 거처를 개발하였습니다. 새로 개발된 임시 거처는 기술적 성능을 검증하고 수혜자의 수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2013년 현장에서 테스트 될 예정입니다.

- 국제적십자사위원회(ICRC), 국제적십자연맹(IFRC)과의 협력을 통해 요르단에 임시 거처 방한 키트를 제공하였습니다.

- 레바논과 말리 등지에서 난민들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를 위한 현금(cash-for-rent)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환경 · 에너지 프로그램

환경 오염과 안전한 에너지 자원으로의 제한된 환경에서 비롯된 심각한 보호 위험은 2012년에도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는 여성들이 장작을 구하기 위해 난민촌 외부로 멀리 나가다가 성폭력(SGBV) 위험에 노출되는 것, 부족한 천연 자원을 두고 난민과 난민 보호 현지 공동체 간에 벌어진 경쟁에서 발생한 사회적 긴장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유엔난민기구는 에티오피아, 르완다, 남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난민들의 환경 지원 사업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각국의 에너지 사태에 대처함으로써 난민과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지원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 부르키나파소, 차드, 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 수단 등 아프리카 6개국에서 포괄적 에너지 평가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유엔난민기구 2013년 에너지 전략 개편의 기본 원칙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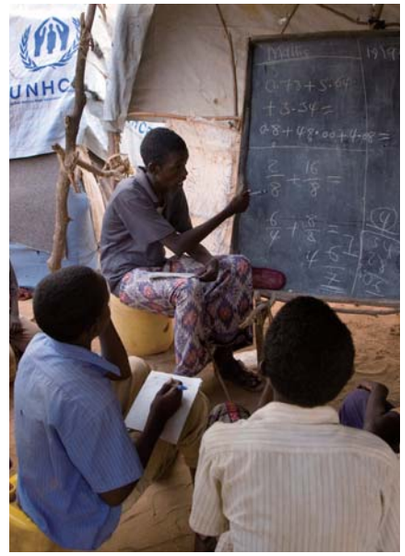
- '미래를 밝히는 빛(Light Years Ahead)' 캠페인으로 마련된 기금을 통해 케냐, 르완다, 수단, 우간다 난민촌 난민들에게 150개 이상의 태양광 가로등, 7,000개의 연료 효율 스토브, 11,000개의 태양광 손전등을 공급했습니다.

"난민보호와 환경보호는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난민촌에 태양광 가로등과 손전등을 공급함으로써 난민 여성들이 안전하게 돌아다니고 어린이들이 밤늦은 시각까지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

교육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취학 연령 난민 인구의 50%를 보호하고 있는 13개국(방글라데시, 차드,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케냐,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남수단, 수단, 시리아, 우간다, 예멘)에서 2012~2016년 교육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이 전략은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300명의 현장 직원, 파트너 및 정부 관료들에 대한 교육을 포함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8개의 교육 전문가 직위를 마련하고, 11개국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긴급 구호 상황에서 교육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유니세프(UNICEF)는 교육 부문 핵심 파트너로 활동했습니다. 2012년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유니세프와 협력하여 아프리카 8개국에서 여학생들의 교육 참여를 향상시켰습니다.

- 2012년 12개국 176,000명의 난민 어린이들을 학교에 등록시키는 것을 목표로, 카타르 왕비가 의장을 맡고 있는 교육 최우선(Education Above All, EAA) 재단의 '어린이 교육(Educate A Child, EAC)'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 수단 다르푸르(Darfur)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및 기술 훈련 참여율이 지난 1년간 30% 증가하여 1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식품처리, 금속 가공, 자동 전력, 운전, 고급 재단, 자동차 정비, 전화 정비, 건설 등 다양한 직업 및 기술훈련에 참여했습니다.

- 지난 20여 년간 40개국에서 2,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재정 혜택을 준 DAFI(Albert Einstein German Academic Refugee Initiative) 장학금 프로그램에 690명의 새로운 학생들을 등록했습니다.

- 900만 난민 어린이를 돕는 나인밀리언 캠페인(ninemillion.org)의 스포츠 및 기술 프로그램을 통해 알제리, 코스타리카, 모로코, 남아프리카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했습니다.

-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과 공동으로 '지역 사회에 기반한 유아기 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습니다.

물과 위생(WASH) 및 공중보건

유엔난민기구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 기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20개국에 물과 위생(WASH) 전문가 직위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전문 직원의 배치와 파견근무 및 역량 구축으로 중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동, 아프리카 동부 및 북동부 지역을 포함하여 에티오피아, 요르단, 케냐, 레바논, 나이지리아에서의 활동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긴급 구호 활동에서 공중보건 부문에 높은 우선 순위가 주어짐에 따라 부르키나파소,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말리, 모리타니아,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터키에서 건강, 위생, 영양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와 협력하여 약 50명의 전문가들을 배치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단독으로는 기술 지원단을 70회 파견해 약 500일 동안 여러 긴급 구호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 25개의 생산성 높은 시추공, 수자원 보관 철제 탱크, 200개의 수도꼭지, 배관로를 설치하여 케냐 다답(Dadaab) 난민촌과 알린주구르(Alinjugur) 난민촌의 수자원 공급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 8개국에서 월별 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모니터링 시스템(점검 체제)을 성공적으로 도입했고, 직접적인 모니터링을 개선하기 위해 수질 테스트 키트를 비롯한 관련 장비를 조달하고 배포했습니다.

- 2012년 말, 95개의 장소 중 84 곳(88%)에서 허용 가능한 정도의 5세 이하 사망률(U5MR)이 기록되었고(유엔난민기구 USMR 기준 <1.5 명 사망/1,000/월), 특히 케냐 카쿠마(Kakuma) 난민촌 수치는 0.6명에서 0.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하여 인도적 환경에서 정신 건강 및 심리 사회적 요구와 자원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 필수 의약품과 의료 장비의 개선된 목록, HIV와 에이즈, 영양 및 식품 안전과 위생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 대비 및 대응 전략 매트릭스 등을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영양

유엔난민기구는 각국에서의 영양 평가 및 긴급 사태에 대한 프로그래밍과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영양 부문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부르키나파소, 차드, 에티오피아, 요르단, 케냐,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네팔, 니제르, 르완다, 남수단, 수단, 짐바브웨 등 여러 국가에서 영양 부문의 주요 활동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영양 지원 센터의 탈중앙화, 공동체 봉사 프로그램, 영구적 수자원 시스템 설치를 통해 에티오피아 돌로 아도(Dollo Ado) 난민촌에서 영양실조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 2013년에 완성될 '표준화된 긴급 영양 조사'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수정 보완했습니다.

- 긴급 영양 네트워크와 아동 건강 연구소가 7개 시범국에서 실시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엔난민기구의 빈혈 대처 전략을 개선했습니다.

- 새로운 영양 제품의 사용에 대한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10개국에서 운영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에서 이용되는 영양 보충식품인 뉴트리버터(Nutributter®)와 방글라데시에서 이용되는 플럼피도즈(Plumpy' Doz®)에 대해 평가하고 빈혈과 급성 영양실조에 미치는 이들의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식량 안전
(현금 기반 지원)

유엔난민기구는 자발적 귀환과 도시 지역 프로그램의 경우, 현금 지원을 통해 다년간 난민들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러한 현금 지원은 최근 중동에서 그 가치를 입증했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난민과 보호대상자들이 이러한 유형의 보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금 기반 지원을 체계적으로 증가시킬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도시 혹은 교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그들은 스스로 자립해야만 합니다. 현금 기반 지원이나 식량 이용권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수혜자 자신이 본인의 구체적인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지원 사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해줍니다.

- 현금 기반 개입은 난민들 스스로 그들 자신의 우선 순위 및 대처 방안을 결정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성 매매, 아동 노동과 강제 결혼 등 생존을 위한 부정적인 대처 메커니즘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보호를 강화합니다. 또한 현금 기반 개입은 가족이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 다음 표는 현금 기반 개입이 이루어진 각국의 예시입니다.

국가	예시
이집트, 에티오피아	도시 지역에 있는 난민들의 기본적인 수요, 특히 주거 비용을 위한 현금 보조
차드	난민촌에 있는 취약 그룹의 기본적 수요를 위한 현금 보조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동절기 동안 증가된 소비지출을 고려한 계절적 현금 보조 (예. 의복과 공공 비용)
레바논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집을 수리하려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현금 보조
시리아	기본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식량 이용권 제공
수단	곡물 제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이용권 제공
케냐	일반적인 식량 배급을 보완하여 식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신선한 음식 이용권 제공
에콰도르	슈퍼마켓에서 비식량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 제공
콩고민주공화국	시장에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 제공
이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건강 보험 제공
스리랑카	귀환자들을 위한 임시 거처 보조금 지원
아프가니스탄, 온두라스, 모잠비크	귀환자들의 사회 · 경제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현금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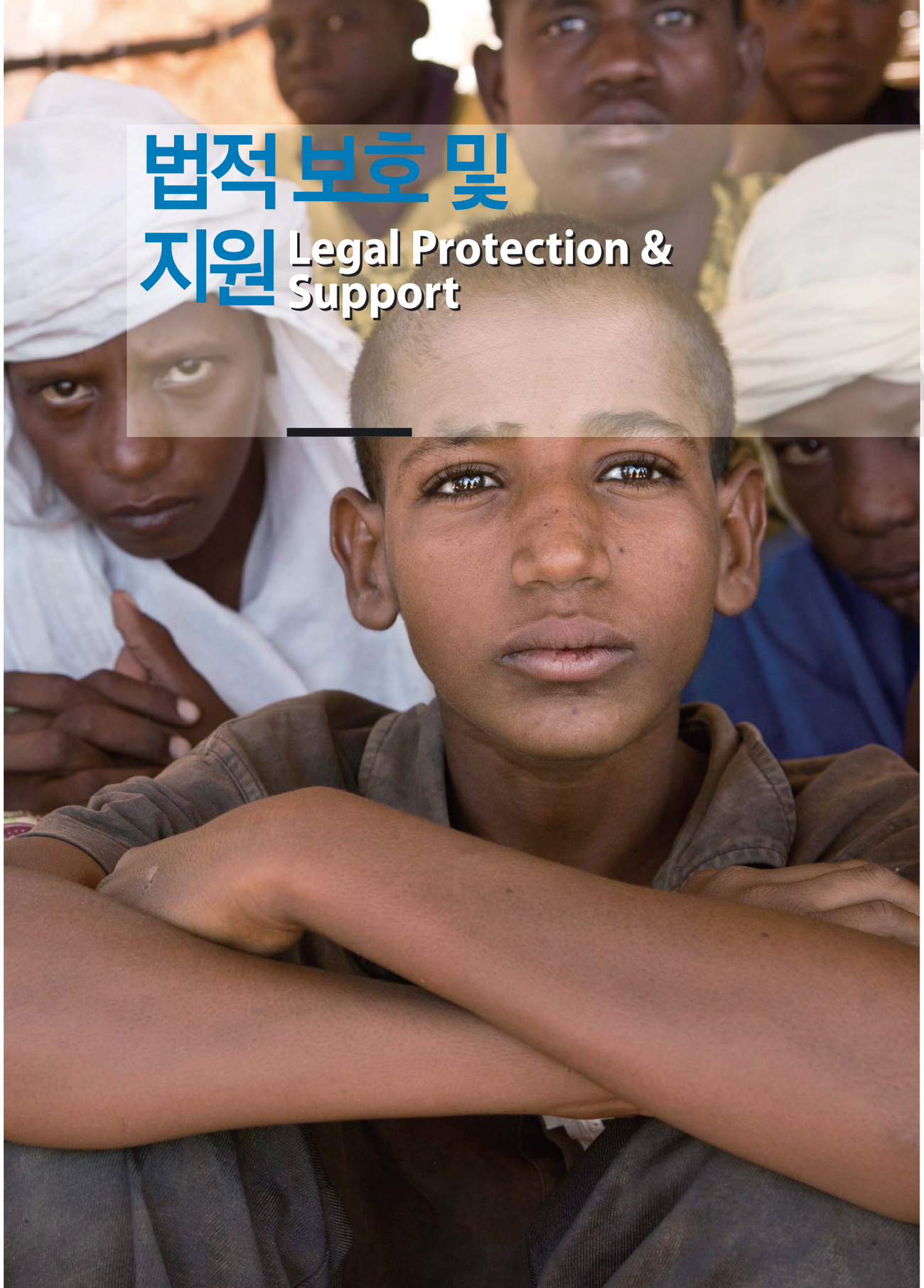
고향을 그리며 잠 못 이루는 밤, 평화를 꿈꾸다

미쇼 씨는 미얀마 국내실향민입니다. 미얀마 라킨주에서 시작된 분쟁을 피해 딸과 함께 챠웅(Chaung) 난민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 난민촌에 무사히 도착했고, 유엔난민기구에서 담요, 침낭, 텐트를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고향으로 하루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라킨주 사람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미쇼 씨 가족은 오늘도 하루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법적 보호 및 지원 Legal Protection & Support



유엔난민기구는 긴급 구호를 중심으로 난민 지원 활동을 펼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 보호 원칙을 준수할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보호 환경 및 의식을 개선하고, 난민을 법적으로 등록하여 보호하며, 특수한 필요를 가진 난민들의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난민의 자발적 귀환, 현지 통합, 제3국 재정착의 세가지 영구적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난민을 위한 영구적 해결책을 추구하고 제공하는 것은 국제적 보호의 중요 요소이며 유엔난민기구의 임무와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영구적 해결책

자발적 귀환 세 가지 영구적 해결책 중 기구가 가장 장려하는 방안으로, 본국의 난민 위기상황이 종료 혹은 안정될 경우 난민이 자발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자발적 귀환이 가능한 환경을 도모하고, 각 개인이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여 자유로운 의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12년 아프리카에서는 앙골라(20,000명), 라이베리아(29,000명), 콩고민주공화국(46,000명), 차드(1,600명), 모리타니아(6,500명), 코트디부아르(6,000명) 난민이, 아시아에서는 아프가니스탄(98,000명) 난민이, 중동에서는 이라크(84,900명) 난민이 자발적으로 귀환했습니다.

현지 통합 자발적 귀환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비호국에 정착하여 현지사회에 동화되는 것으로 난민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지 통합은 복잡하고 점진적인 과정으로 법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난민 개인과 수용하는 사회 모두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2012년 유엔난민기구는 관련 정부와 협력하여 앙골라(60,000명), 라이베리아(10,000명) 난민들의 현지 통합을 지원했습니다.

제3국 재정착 일부 난민에게는 자발적 귀환이나 현지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유엔난민기구는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3국 재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아래 70,000여 난민들이 제3국으로 재정착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미얀마 난민 7,800명이 미국, 호주 등지로 재정착했습니다.

보호 환경 및 의식 개선

입국 체제 및 이민 정책(강제송환금지 원칙)

모든 사람은 박해와 다른 심각한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비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비호 제도의 중심에는, 누구든 삶이나 자유에 대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돌려보내지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각국과의 협력을 통해 개선된 난민 입국 체제를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경 감시훈련의 공동 시행, 국경지역 관료 교육 및 훈련, 국경에 도착하는 비호신청자의 신분 확인, 등록 및 후속 조치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개발 등을 통해 많은 지역에서 안전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비호 절차를 촉진시켰습니다.

구금에 대한 대안

구금에 대한 대안없이 비호신청자들의 구금을 허용하는 정부의 정책과 관행에 도전하는 것은 유엔난민기구 활동의 우선 순위에 속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구금의 대안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각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입법 및 규범 체계

2011년 정부간 기념 행사에서 이루어진 서약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국제 난민 협약의 준수를 위해 국내 난민 법안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볼리비아, 중국, 그루지야, 키르기즈스탄,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이미 난민보호에 관한 새로운 법률과 규정들을 채택했습니다. 다른 많은 국가들도 유엔난민기구의 지원 하에 입법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난민기구는 보호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혹은 비호신청자나 난민에 대한 극단적 정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록(Registration)

대량 난민 등록

분쟁, 일반화된 폭력의 결과로 대량 난민이 집단으로 이동하는 경우, 국경을 넘는 개인에 대한 개별 면접이 어렵고, 각 개인은 사실상(prima facie) 난민으로 간주됩니다. 2012년 여러 긴급 구호 상황은 보호 수단으로서의 등록의 가치를 강조했고,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확하며 시의 적절한 정보 획득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말리와 시리아에서 그 중요성이 잘 드러났고, 브룬디,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르완다, 소말리아, 남수단 등지에서도 대량 난민 등록이 진행되었습니다.

출생 등록

출생 신고는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고,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수적이며, 무국적을 방지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2012년 도시 지역 난민들의 출생 신고 수치에는 개선이 있었으나 난민촌과 농촌 지역에서는 신생아들의 절반만이 등록되었습니다. 2012년 모바일 출생 등록 캠페인을 통해 케냐 카쿠마 난민촌의 출생 신고비율이 80%까지 증가했고, 유엔난민기구와 협력 기관의 노력으로 차드의 출생증명서 발급률은 2011년 30%에서 2012년 85%로 증가했습니다.

개별 난민지위인정*/ 비호 절차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들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 적절한 판단은 비호신청자의 비호 받을 권리와 국가가 난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근본적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난민지위인정 절차를 감독 및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 및 적용을 위해 2012년 지침을 개발했습니다. 비호 절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완전하게 기능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유엔난민기구가 자체적으로 난민지위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60여 개국에서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 난민지위인정(Refugee Status Determination, RSD) 절차: 개인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유엔난민기구 혹은 국가가 취하는 법적 · 행정적 절차

가족 재결합

난민의 피난 과정은 종종 가족 구성원들간 이별을 초래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가족 재결합의 원칙에 있어 부모 자식간의 관계를 넘어 사실혼과 동성애 관계를 포함하는 유연한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친지들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국제적십자사위원회(ICRC)와 협력하여 가족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국제이주기구(IOM) 및 시민 단체의 협력 하에 각국 이민국 혹은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필요를 가진 난민의 보호

장애를 가진 난민

2012년 장애 난민 보호에 있어 긍정적인 전개가 나타났습니다. 인도에서 장애 난민 보호 성과가 향상되었으며, 방글라데시에서는 장애가 있는 보호대상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 등록 사무소를 이전했고, 우간다에서는 장애 난민들로 구성된 협회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착수되었습니다.

난민 여성

유엔난민기구는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했으며,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차드 난민촌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지원, 콩고민주공화국 남 키부 실향민 공동체 남성들의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참여, 콜롬비아 국내실향민을 위한 기관 간 성폭력에 관한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의 향상, 그리고 아이티, 그루지야,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에서의 안전한 공간 확보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카운슬링 서비스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10개국 성폭력 생존자들과 여성 및 소녀들에게 제공되었고, 미술 치료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에콰도르와 그루지야의 난민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아동

유엔난민기구는 2012년 아동 보호를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확립했습니다. 이것은 난민 어린이들, 지역 사회, 직원 및 파트너들과의 광범위한 협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특정 범주의 어린이들에게 중점을 두었던 이전과는 달리, 보호대상자인 모든 어린이들이 직면하는 보호 전반에 관한 문제를 예방, 완화,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설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2012년 에티오피아 북부, 수단 동부와 이집트 카이로 지역을 중심으로 아동 보호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그 지역의 아동 보호와 인신매매 척결에 기여했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이 가져온 기적

그리운 내고향 브룬디로

사라 씨 가족에게는 오늘이 탄자니아 움타빌라(Mtabila) 난민촌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
사라 씨는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으로 어머니, 두 딸, 애완견과 함께 내일 고국 브룬디로 돌아갑니다.

"두 아이들이 난민촌이 아닌 바깥 세상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브룬디 난민 지위가 종료되면서, 2012년 연말까지 35,000여 브룬디 난민들이
유엔난민기구와 협력 기관의 도움으로 탄자니아에서 브룬디로 귀환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사라 씨 가족은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재정 보고 Financial Reporting

유엔난민기구의 예산은 2010년부터 시행된 글로벌 수요조사(Global Needs Assessment, GNA)*를 바탕으로 기획되며 본부의 검토와 집행이사회(EXCOM)의 승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유엔난민기구의 2012년 필요예산은 미화 43억 달러였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유엔난민기구는 각국 정부, 정부간 기구, UN, 민간(개인, 기업, 재단 등) 부문에서 받은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23억 달러의 후원금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필요예산의 54%에 그친 금액이었습니다.

* 글로벌 수요조사(Global Needs Assessment, GNA): 각 지역사무소가 담당하는 국가별 보호대상자의 수와 사업필요성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개입된 정부, UN기구, NGO와의 협의를 거친 후 완성됩니다. 그 후 2개년간 보호대상자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예산을 구상하고, 본부의 사업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세밀한 검토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필요예산 및 수입

필요예산

2012년 글로벌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확정된 필요예산은 2011년보다 11% 증가한 미화 **43억** 달러였습니다. 특히, 7개의 신규 긴급 지원 프로그램(시리아 긴급 구호, 수단 긴급 구호, 말리 긴급 구호, 콩고민주공화국 긴급 구호 등)이 추가되면서 필요예산이 기존 승인된 36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입

유엔난민기구의 후원금은 자발적으로 운영됩니다. 2012년에는 2011년보다 9% 증가한 미화 **23억** 달러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이 자금에 2011년 이월금, 조정, 환율 및 그 외 출처로부터 얻은 순이익 등이 더해져 2012년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을 위해 사용 가능한 전체 기금은 총 미화 **26억** 달러였습니다. UN 본부로부터 한 해 활동을 위해 지원받는 UN 분담금 조성 예산은 2~3% 정도입니다.

구분		비용 (단위: 미화 달러)	
2012년 자발적 후원금	정부 및 정부간 기구, 민간후원	21억 5,016만	23억
	UN 기금*	1억 2,136만	
	UN 분담금으로 조성된 예산**	4,698만	
2011년 이월금		2억 3,200만	
조정, 환율 및 그 외 출처로부터 얻은 순이익		5,840만	
기타(공동 인도주의 파이프라인 특별/전용 계좌)		1,600만	
2012년 사용가능 총 금액		26억	

* UN 기금(UN-managed pooled and trust funds) ** UN 분담금으로 조성된 예산(UN regular budget)

자발적 후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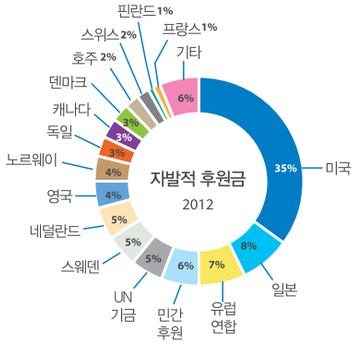
정부 및 정부간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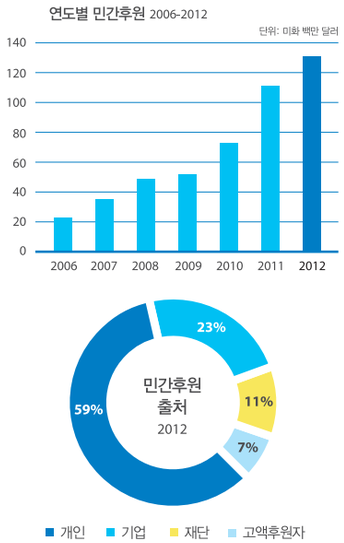
2012년 유엔난민기구는 총 미화 23억 달러의 기금을 모금하였습니다. 미화 21억 5,016만 달러는 각국 정부 및 정부간 기구, 민간영역에서 자발적 후원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특히 각국 정부 및 정부간 기구로부터 미화 20억 달러 이상을 모금하였는데, 기금의 50%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에서, 77% 이상은 상위 10개 국가 및 국가연합체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민간후원(Private Sector Fundraising)

2012년 유엔난민기구는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 기부자들을 포함한 민간후원*을 통해 총 1억 3,011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보다 17% 상승한 수치이며, 우측 막대 그래프는 2006년 이래 지난 6년간 500% 이상 증가하고 있는 민간후원의 확대를 보여줍니다. 국가별 민간영역 후원 기반이 증가되고 확대되었으며, 특히 네덜란드, 스페인, 호주, 일본, 이탈리아, 미국, 카타르의 민간영역에서 조성한 기금은 상위 10위권을 차지했습니다. 2012년, 전년보다 29% 증가한 62만 8,000명의 개인 기부자들이 미화 7,730만 달러를 난민보호 사업에 후원하셨고, 이는 민간후원에서 가장 큰 부분(59%)을 차지했습니다. 기업 파트너, 재단과 거액후원자로부터의 모금을 포함하는 리더십 기빙(Leadership Giving) 프로그램에서는 총 미화 5,280만 달러가 조성되었습니다.

* 민간후원(Private Sector Fundraising, PSFR): 각국 정부 및 정부간 기구가 아닌 개인, 기업, 재단, 거액후원자 등 민간 기부자 및 단체로부터 조성된 기금을 지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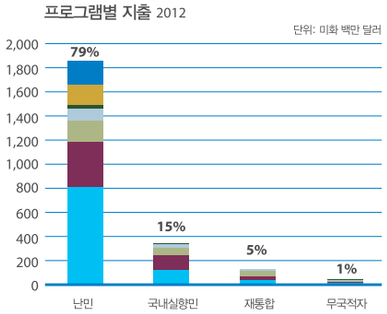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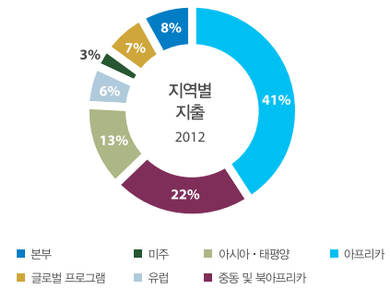


지출

2012년 유엔난민기구는 총 23억 5,800달러를 지출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난민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18억 5,000만 달러로 총 사업비 지출의 79%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의 지출에 비해 13% 증가한 것입니다. 국내실향민 사업에 대한 지출은 2011년에 비해 9%가 감소해 3억 4,360만 달러(15%)를 기록했습니다. 재통합 사업과 무국적자 사업에 대한 지출은 각각 1억 1,840달러(5%)와 3,480만 달러(1%)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지출은 2011년에 비해 2% 증가하여 전체 사업비 지출에서 41%를 차지했습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지출은 2011년 보다 5% 증가한 22%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지출의 증가치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지속 또는 증가되고 있는 난민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출은 18%에서 13%로 감소한 반면, 유럽과 미주 지역은 계속해서 각각 6%와 3%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프로그램에 사용된 자금은 8%에서 7%로, 본부의 지출은 9%에서 8%로 2011년에 비해 각각 감소했습니다.





민간영역 기업후원 이케아(IKEA) 사례

유엔난민기구의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 중 가장 큰 사기업부문 파트너인 이케아(IKEA) 재단은 2012년 3년에 걸쳐 후원금을 미화 9,500만 달러로 증액하였습니다. 해당 기금은 에티오피아, 수단, 방글라데시 난민촌의 난민들과 주변 지역 공동체에 장기적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케아 재단의 현물후원으로,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 아이들이 수난(SUNAN) 태양광 램프를 포함한 구호품을 제공받았습니다. 2012년 한 해동안 이케아 재단이 유엔난민기구와 함께한 노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에티오피아 돌로 아도(Dollo Ado) 지역의 고베(Kobe) 난민촌과 힐라웨인(Hilaweyn) 난민촌 거주지가 더 나은 디자인과 구조로 개선되어, 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존엄한 거주환경으로 변화했습니다.
- 방글라데시와 수단에서 진행된 생계지원 프로그램으로 문맹률을 낮추었고, 직업 교육을 통해 난민들이 구호품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 에티오피아, 수단, 방글라데시의 교육부문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여,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학생 대 교사 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이케아 재단의 비전은 가난 속에 사는 어린이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세계입니다. 2012년 동안 저희는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왔고, 확고히 자리를 잡은 프로그램들과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해결책을 통해 난민 어린이들에게 계속해서 현실적이고 장기적이며 영향력있는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
> – 페르 헤게네스(Per Heggenes) 이케아 재단 최고경영자(CEO)

1월 배우 이연희와 함께하는 DAUM 희망해

유엔난민기구는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다음(DAUM)과 함께 2012년 1월 '희망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6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기근으로 피난을 떠나온 소말리아 난민들을 돕기 위해, 수많은 분들이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7,124명의 기부자가 직접 기부와 SNS 알리기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했고, 갤러리 바톤에서 전달해주신 '5x5 우리들이 본 세상' 사진전 수익금까지 더해져 총 25,608,715원의 소중한 기금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희망해 캠페인' 기금은 케냐 다답 난민촌에서 긴급 구호 지원이 필요한 난민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2월 국내 난민 보호를 위한 울타리
대한민국 난민법 제정

2009년부터 몇 년간 국회 계류중이었던 난민법안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2년 2월 10일 법(제 11298호)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독립된 난민법 제정은 한국 난민보호 절차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뜻깊은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통과된 난민법안은 공항만에서의 난민신청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난민지위 신청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난민지위 심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면접시 통역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강제송환금지 원칙, 난민의 재정착과 관련한 조항, 난민인정자와 신청자의 처우에 관한 조항 등 난민과 난민지위신청자 보호를 개선하는 여러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의 난민지위불인정 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소를 신청한 자도 난민지위신청자로 포함하여 난민인정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5월 나눌수록 커지는 기쁨
후원금 증액캠페인

"매달 난민 3,750명이 깨끗한 물을 나르고 보관할 수 있게 되었어요!"

2012년 5월부터 시작된 한국대표부 후원금 증액캠페인에 750명의 후원자가 동참해주셨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손길은 매달 난민 5명에게 깨끗한 물을 퍼다 나르고 보관할 수 있는 물통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이번 캠페인에 750명의 후원자님이 참여해주셔서 매달 3,750명의 난민들에게 추가 물통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도 후원금 증액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6월 UN 세계 난민의 날

20 June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6월 20일 UN이 지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난민 보호에 더욱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여수엑스포 유엔관 전시에 참여하여 기구의 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바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열린 전시에서 한국대표부는 '전쟁터에서의 죽음 VS 가족과의 생이별'이라는 딜레마 상황에 놓인 난민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영상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주말에는 '희망의 벽: 난민의 아픔 덜어주기' 스티커월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직접 벽에 부착된 스티커를 떼어냄으로써 난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다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밖에도 난민텐트 전시체험, 로보트 태권브이 모형 전시, 난민다큐 상영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었습니다.

7월 아프리카 땅에 전달된
희망의 빛(희망등)

2011년 연말 〈희망 TV SBS〉 방송을 통해 유엔난민기구의 난민보호 활동에 참여해주신 후원자님들의 후원금으로 희망등이 마련되었습니다. 후원자분들 각각의 이름과 응원 메세지가 달린 희망등 2,372개가 2012년 7월, 동아프리카 케냐 다답 난민촌에 무사히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등은 어둠으로 고통받는 난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받고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대표부 활동 보고

7월 알렉산더 알레이니코프 유엔난민부고등판무관 방한

7월 4~6일 유엔난민기구 제네바 본부에서 알렉산더 알레이니코프 유엔난민부고등판무관이 방한했습니다. 알레이니코프 유엔난민부고등판무관은 대한민국 정부 및 협력 기관의 관계자들을 만나 아프가니스탄 난민 및 장기화된 콜롬비아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10월 TV 공익광고로 만나는 유엔난민기구 영상

2012년 10월부터 TV 공익광고를 통해 유엔난민기구 홍보영상을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종교, 시사, 문화, 교양 채널을 통해 유엔난민기구의 후원/홍보영상을 보시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분쟁, 폭력, 박해로 고통받는 전 세계 난민들을 위해 후원에 참여해주시고 있습니다.

9월 UN직원 행동규정 교육 실시

유엔난민기구는 기구의 모든 직원 및 관계자가 업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행동규정(Code of Conduct) 교육을 받도록, 또한 각 사무소가 매년 한 차례, 심화된 행동규정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대표부도 매년 행동규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6일 앤 메리 캠벨 전 대표의 지도 하에 전 직원 및 인턴을 대상으로 전일 교육을 실시하여 각 개인이 인도주의 국제기구 직원으로서 철저한 윤리의식과 책임성,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월 유니클로-유엔난민기구 업무 협약식

2012년 10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유니클로의 한국법인인 FRL코리아 사이의 양해각서 체결이 있었습니다. 양해각서를 통해 유니클로와 유엔난민기구는 유엔난민기구의 거리홍보모금 활동과 유니클로의 '전상품 리사이클 활동'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11월 장동건, 김민종과 함께하는 나눔의 품격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2012년 〈희망 SBS TV〉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11월 16~17일 양일간 UN기구(유엔난민기구, WFP, UNICEF)와 다른 6개 기관들이 참여한 행사를 통해, 어린 아이를 키우고 계신 젊은 어머니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18,000여 명의 시청자께서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UN기구와 함께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배우 장동건, 김민종 씨의 영상을 보고 많은 후원자분들이 유엔난민기구의 신규 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12월 난민법의 바람직한 이행을 위한 정책 심포지움 개최

유엔난민기구는 국회인권포럼과 함께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을 앞두고 난민법의 바람직한 이행을 위한 정책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부,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난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계획을 통해 향후 국내 난민보호 정책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UNHCR KOREA
한국대표부 재정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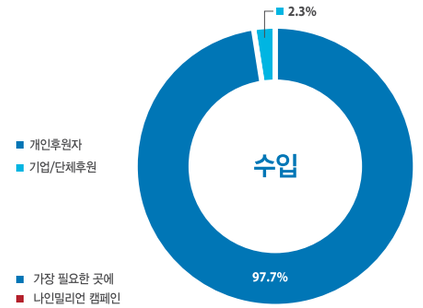
전 세계 난민보호 활동은 후원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2012년 25,000명의 정기후원자를 포함하여 총 60,000여 후원자 분들의 보호손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전 세계 난민보호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값지게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엔난민기구는 기존에 갖추었던 전문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지속 발전시켜 후원자 분들의 소중한 마음과 지원이 난민보호 및 문제해결을 위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수입/지출 총액

2,943,617,923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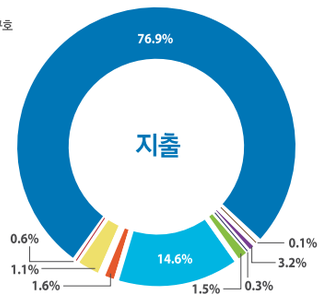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2012년 수입

개인후원자	2,876,544,323원	97.7%
기업/단체후원	67,073,600원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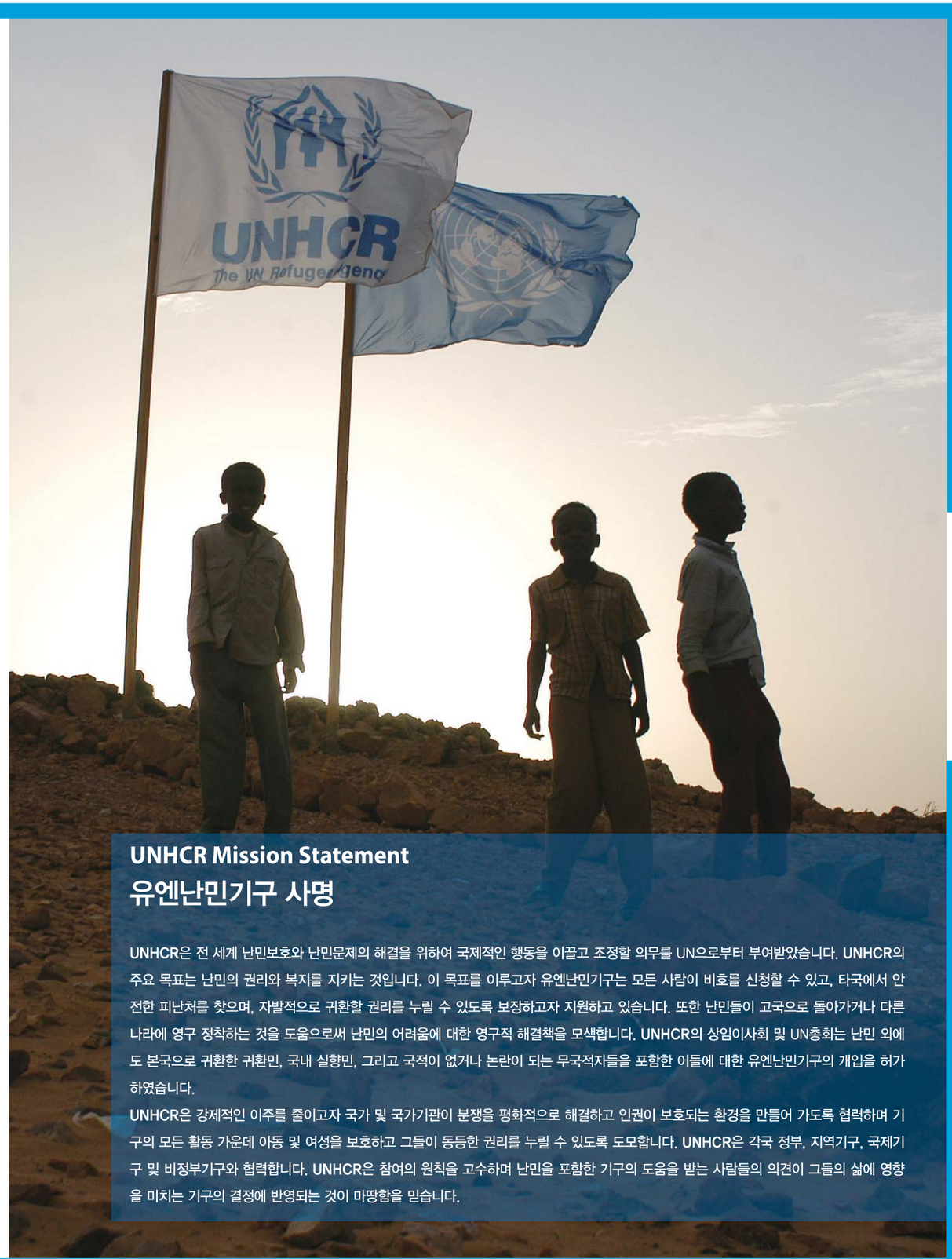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2012년 지출

가장 필요한 곳에	2,263,546,980원	76.9%
긴급 구호 활동	33,208,600원	1.1%
KBS 희망로드 대장정	47,073,600원	1.6%
나인밀리언 캠페인	18,329,000원	0.6%
SBS 희망TV 케냐 난민촌 지원	431,115,997원	14.6%
SBS 희망TV 콩고민주공화국 지원	45,167,700원	1.5%
MBC W 기금	8,296,300원	0.3%
동아프리카 긴급 구호	94,854,746원	3.2%
기타 기금	2,025,000원	0.1%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본부의 승인 없이는 후원금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엔난민기구 본부에서 승인 받고 개설된 계좌로 모아진 후원금 전액은 익월 첫째 주에 스위스에 있는 유엔난민기구 본부로 송금되어 연례 계획에 따라 전 세계 난민보호 활동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한국대표부의 운영예산은 후원금이 아닌 본부로부터 받은 별도 행정예산에서 집행되며, 전 세계 개인 및 기업 후원자들로부터 조성된 기금은 전액 유엔난민기구의 난민보호 활동에 사용됩니다.
- 유엔난민기구는 매년 한 차례 유엔 본부에 재정 보고를 하고, 정기적으로 철저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UNHCR Mission Statement
유엔난민기구 사명

UNHCR은 전 세계 난민보호와 난민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인 행동을 이끌고 조정할 의무를 UN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UNHCR의 주요 목표는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고자 유엔난민기구는 모든 사람이 비호를 신청할 수 있고, 타국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으며, 자발적으로 귀환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에 영구 정착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난민의 어려움에 대한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UNHCR의 상임이사회 및 UN총회는 난민 외에도 본국으로 귀환한 귀환민, 국내 실향민, 그리고 국적이 없거나 논란이 되는 무국적자들을 포함한 이들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개입을 허가하였습니다.

UNHCR은 강제적인 이주를 줄이고자 국가 및 국가기관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인권이 보호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협력하며 기구의 모든 활동 가운데 아동 및 여성을 보호하고 그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모합니다. UNHCR은 각국 정부, 지역기구,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합니다. UNHCR은 참여의 원칙을 고수하며 난민을 포함한 기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의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 마땅함을 믿습니다.